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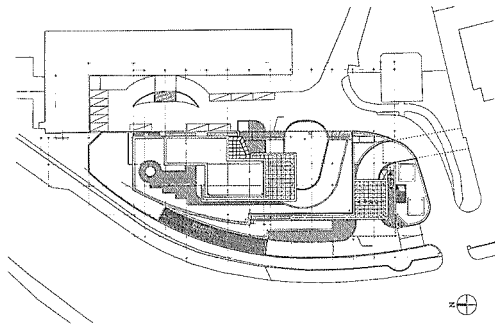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uneral Chapel

(주)삼우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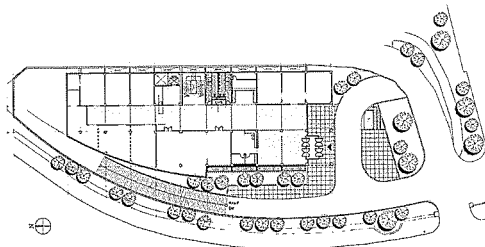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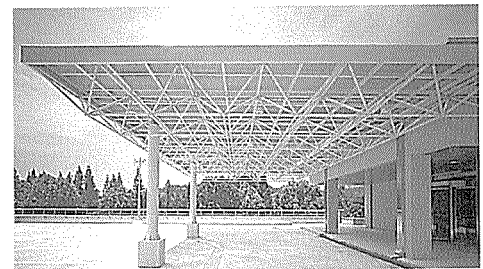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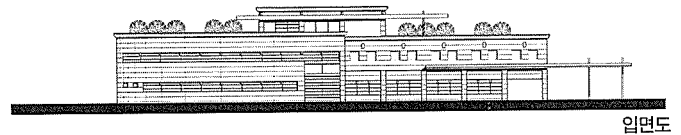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 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2층 미관지구, 일부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98,719.4㎡
건축면적	1,382.6㎡
연면적	4,224.6㎡
조경면적	16,996.9㎡
건폐율	21.88%
용적률	75.9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내부 마감	바닥 - 카펫타일, 무석면 비닐타일, 벽 - 무늬목, 석고보드 위 무광 아크릴 페인트, 천장 - 압면 흡음텍스
외부 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T16 파스텔 복층유리
설계기간	1997. 2~1997. 10
공사기간	1998. 2~1999. 5
사진	염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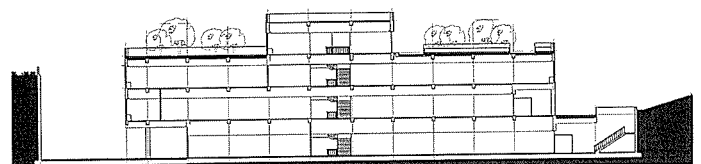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대부분의 병원 영안실이 실질적으로는 장례식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안실이 기피시설 내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병원 영안실은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인가? 지금의 시설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건축된 몇몇 민간 병원 영안실의 선도적인 역할(?)에 힘입어 - 그러나 이들 역시 지하에 건축되어 있다. - 이러한 인식이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들 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주어진 부지 상황은 과감한(?) 결단을 쉽게 해주었다. 10m가 넘는 부지의 고저차는 자연스럽게 영안실의 한 면을 창경궁과 마주하는 대로변에 완전히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1층과 3층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 기존의 병원부분과 외부에서 접근 동선을 처리하였다. 기존 구릉지의 경사면을 연장하

여 노제가 행해지는 지하 앞마당을 대로변의 시선에서 차단하고 옥상 정원을 조성하여 주변환경을 자연스럽게 대지 내로 유입하였고,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였다. 대학교와 창경궁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외장재는 화강석을 선택하였고, 또한 권위적이거나 장엄한 느낌을 줄이고 건물 외형의 직선부와 곡선부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유리면을 사용, 완충 역할을 유도하였다. 이것은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와도 잘 부합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문화도 변화하였다. 서로가 바쁜 생활에 예전처럼 모두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별도의 조객실을 두지 않는 병원 영안실도 생기고 있지만 찾아오는 조문객을 접대해야 하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따라서 실내설계는 이러한 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종 시공단계에서 민원에 부딪혀 투시형 담장이 막힌 담장으로 시공되어 본래 계획처럼 가로변에서 건물을 볼 수 없게 되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